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 소생 제목 :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성경 : 에스겔 37장 7-14절

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37:7-14)

사람은 끝이어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한결 같이 악하고 무능하다. 어떤 사람이 선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직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아서이다.

칼빈은 사람은 악해도 전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선언하였다.

전적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이며, 지속적이며, 뻔뻔스럽게 악하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세계에 미친

다.

왜 이처럼 사람이 악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인간의 거룩한 성품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인간의 거룩한 성품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품중 하나는 순종하는 성품이다.

순종은 필수적인 성품인데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이때 순종이라는 성품이 매우 값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크게 감동된다. 다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묵상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룰 수 있을지를 연구하게 된다. 이때 성령이 부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 마귀가 마귀의 생각으로 사람의 순종하는 성품을 공격하고 더럽힌다. 마귀는 자존심, 교만, 욕심, 탐욕, 질투, 자격지심, 두려움, 열등감, 불만, 무지 등 우리 안에 온갖 쓰레기들을 뒤집어서 사람이 자기의 더러운 거짓말에 속아 거짓말에 순종하도록 계락을 꾸민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실패와 좌절과 고민에 빠지게 한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마귀에게 순종해서 순종의 성품이 더럽혀졌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쁨의 샘을 열어 주신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를 우리가 순종하게 될 일의 앞에 보내 주신다. 그래서 형통케 하신다. 그렇게 해서 순종이 완성되게 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도 명령하셨다. 그런데 에스겔의 순종을 사용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순종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하게 지으셨

고, 그들을 사랑하시려는 목적이 있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기 원하셨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순종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기 원하셨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명령해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겔37:5)

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리’ 하셨다 하라 (겔37:6)

에스겔은 명령했고, 마른 뼈들은 순종하였다.

에스겔도 명령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러자 뼈들은 에스겔의 말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생기를 명령해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명령했다. 그러자 곧 이 뼈들이 살아났고 군대가 되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모든 소망이 소멸 되었다. 마치 장작불이 꺼지듯이 사그라지고 말았다.

이 무덤은 모든 세속적 의도가 죽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태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소망이나 힘이 없는 상태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시다. 하나님으로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려는 순전한 상태로 보신다.

이제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직 무덤과 같이 된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가? 물론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무덤과 같이 되기 전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신다.

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
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는 망했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나온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이땅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자.

14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37:7-14)

그러나 더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단순한 생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해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징계 제목: 단맛과 쓴맛 말씀: 히브리서 12장 5-13절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렸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오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12:5-13)

커피의 단맛과 쓴맛.

진방진 단맛, 잡맛을 눌러 버린다.

겸손한 쓴맛. 잡맛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한다.

그런데 쓴맛이 각종 향미를 드러내준다.

그래서 잡맛을 봐야 향미를 맛볼 수 있다.

인생에도 쓴맛이 있다.

인생의 쓴맛에 인상 찡그리지 말고 쓴맛을 달콤하게 받아넘기자.

그 가운데 있는 인생의 다양한 맛들을 음미해 보자.

14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잠 23:14)

- 인생채찍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인생의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한다.
- 삶 그 자체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우선순위와 가치를 바르게 판단하게 한다.

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29:15)

- 먼저 가치관이 중요하다. 성경은 너무 중요하고 탁월한 가치이므로 성경으로 아이를 가르치라.

13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23:13)

- 악한 의도와 악한 방법, 그리고 율법주의가 아이를 반항하게 하지, 대화나 타협, 협상들이 아이를 악하게 하지는 않는다.
- 오히려 그것은 아이를 더 풍요롭게 한다.
-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키워라.
- 대화의 끝이 항상 이해하고 납득이 되도록 하라.
- 일방적인 대화가 문제다.

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22:15)

- 아이의 억지를 부릴 수 있다.
- 그때는 징계하는 채찍이 가장 좋은 약이 된다.

